

주말로 옮겨간 '미니시리즈 전쟁'



tvN '사랑의 불시착'



JTBC '초콜릿'

불시착·스토브리그·초콜릿 방송사 핵심작품 집중 투입 비지상과 금·토 공략 '후끈'

평일 미니시리즈가 각 방송사 드라마 국의 핵심이라는 것도 옛말이 됐다. 이제는 주말 전쟁, 그러니까 금·토요일 드라마 싸움이다.

미니시리즈 프라임타임으로 불리는 밤 9~10시대를 기준으로 월·화요일에는 지상파는 SBS TV 'VIP' 뿐이고 tvN '블랙독'과 JTBC '검사내전'이 경쟁 중이다. 수·목요일에는 KBS 2TV '99억의 여자'와 MBC TV '하차있는 인간들', tvN '싸이코패스 다이어리'가 경쟁 중이다.

반면, 금요일 밤부터 주말로 분류되는 최근 트렌드에 따라 금~일요일에는 tvN '사랑의 불시착', SBS TV '스토브리그', JTBC '초콜릿', TV조선 '간택' 등 미니시리즈와, 전통 주말극인 KBS 2TV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MBC TV '두 번은 없다' 등 라인업이 풍성하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 '스토브리그', '초콜릿', '간택' 등은 각 방송사 핵심 작품으로 분류된다. 그중에서도 '사랑의 불시착'은 올해 보



SBS TV '스토브리그'

릿고개를 겪은 tvN에 마지막 가능성을 남긴 작품으로 꼽힌다.

드라마는 험빈과 손예진이라는 호화 캐스팅에 대한민국 재벌가 상속녀와 북한 엘리트 장교 간 로맨스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첫 방송부터 시청률 6%를 돌파했다. 북한 관련 소재와 지나치게 명량한 톤에 대한 호불호가 엇갈리지만, 두 배우, 선남선녀를 안방극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화제성은 때늦은 당상이라는 반응이 많다.

'스토브리그' 역시 기대 이상의 호평을 받는다. 그동안 운동선수 소재로 한 작품은 꽤 있었지만, 야구 중에서도 야구단 프런트를 조명한 작품은 '스토브리그'가

처음이다. 예상보다 꼼꼼한 디테일에 국내 프로야구 팬들은 이 드라마를 각자 응원하는 구단에 대입하면서 몰입하는 분위기다. 시청률도 첫날 3.3%~5.5%에서 둘째 날 5.5%~7.8%로 뛰어올랐다.

'초콜릿'은 1990년대 감성을 살린 멜로로 마니아층을 낳았다. 시골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며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이지만 시청자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가장 명료한 구성이기도 하다. 윤계상과 하지원, 배태랑 배우들의 첫 호흡도 기대 이상이다. 시청률도 4%대에 진입했다.

'간택'은 TV조선 드라마 사상 최고 시

청률 기록을 보유한 '대군'의 주인공 진세연과 김정민 PD의 재회로 관심을 끌었으며, '대군'만큼이나 빠른 전개로 TV조선 기반 시청자층인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의 눈도 붙들었다. 시청률은 3% 돌파를 앞뒀다.

이렇듯 각 방송사가 대작이나 알짜 미니시리즈를 주말에 편성하는 것은 버려진 시간대였던 속칭 '불금'(불타는 금요일)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온 비지상파의 전략, 그리고 드라마 팬수 감축으로 재정난에 대응 중인 지상파의 교육지책에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17일 "과거에는 수·목요일이 지상파 드라마들의 자존심을 쟁겨주는 시간대였다. 금요일은 버리는 시간이었었는데 tvN, JTBC 등 비지상파가 그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새로운 편성 시간대가 구축됐고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정 평론가는 이어 "지상파는 제작비 부담에 월~목요일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 집중을 금·토요일에 맞추려는 흐름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생활패턴도 극단적으로 나뉘었다. 불금이라고 나가는 사람과 집에서 조용히 쉬면서 드라마 한 편 보는 사람으로 극명이 갈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고개 숙인 손석희

"BTS-소속사 갈등 보도 비판 겸허히 수용" 정정보도



손석희 JTBC 사장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최근 '뉴스룸'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이 소속사와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손 사장은 16일 자신이 진행하는 '뉴스룸' 말미에 "지난주 해당 보도와 관련해 후속 취재한 결과 실제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기자가 'BTS 법적 분쟁 가능성 거의 없다'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보도하면서 "소속사가 지난해 가장 모범적인 재계약을 했다고 밝혔고, 방탄소년단도 소송을 의뢰하거나 진행한 사안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손 사장은 후속 보도 후 "이 사안 취재 과정에서 소속사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일부 (소속사) 시설을 촬영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또 아직 소송도 안 하는 상황에서 너무 앞선 보도였다는 비판도 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앞서 JTBC는 지난 9일 '뉴스룸'에서 'BTS, 수익 배분 갈등 소속사 상대 법적 대응 검토 나서'라는 제목으로 방탄소년단 측이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정산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을 검토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에 소속사는 "방탄소년단 및 부모님들은 당사를 상대로 소송을 포함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냈으며, 방탄소년단 팬덤인 아미(ARMY)는 JTBC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JTBC가 일주일가량 반응이 없자 급기야 팬들은 "JTBC 뉴스를 보이콧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JTBC 광고주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결국 손 사장이 직접 진화에 나서야 했다.

/연합뉴스

싸이, '올나잇스탠드' 콘서트 관객에게 신곡 선물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2)가 자신의 콘서트를 찾는 관객에게 신곡을 선물했다. 싸이는 17일 자신의 SNS에 "겨울 노래를 만들어 관객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려 한다"면서 콘서트 '올나잇스탠드'를 예매한 관객 이메일로 음원 파일을 전송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저의 성탄 선물을 받고 들뜬 마음으로 이곡을 달달 외워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불러주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 노래는 음원 사이트에 공개되지 않고 오로지 올나잇스탠드 관객에게만 전

달된다. 콘서트에 오는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함께 해당 노래를 부르며 즐기겠다는 취지다.

신어송라이터인 헤이즈(본명 장다혜·28)가 작사·작곡을 맡았다.

싸이는 해당 글에서 "곡의 구성부터 작사, 작곡, 가창, 코러스를 흔쾌히 함께 해준 헤이즈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올나잇스탠드는 2003년부터 시작한 싸이의 대표 브랜드 콘서트로 싸이 특유의 열정적인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나쁜 사랑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찾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하차있는 인간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크 공감(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99억의 여자(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키티 유니버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하차있는 인간들(재)	00 SBS 뉴스 10 코바이 이세돌! 이세돌 vs 한돌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고고성 50 KBS 재난방송센터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30 헬로키티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2]	00 KBS 뉴스 10 TV는 사랑을 싣고(재)			
[3]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벅스봇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나쁜 사랑(재)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반지의 비밀일기 2 15 쏠! 내 친구는 빅파이브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최중우돌 만국 유람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KBS광주 특집다큐 다시한번 소녀시대	50 우아한 그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35 살리는 남자들	55 하차있는 인간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더 라이브	00 99억의 여자	05 살맛나는 세상	00 이동욱은 토코가 하고 싶어서
[11]	35 UHD 숨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UHD 원나잇 사운드트립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극한직업	18:00 꾸러기 천사들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크프라임	19:00 스파이더맨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55 EBS 초대석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당동영 유치원	14:45 몰랑	20:00 머털도사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최고!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로마로 가는 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1:30 한국기행
09:30 원더볼츠	15:55 엄마 까투리(재)	〈초스러워도 좋아, 츄티기행 3부 우리가 촌으로 간 까닭은〉
09:40 아기 동물 귀여워	16:10 최고!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크프라임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22:45 극한직업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영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3:35 EBS 초대석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4:25 지식의 기쁨(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8일 (음 11월 22일 己丑) ☎ 010-9790-8237

子

36년생 드러나는 형태의 폭이 다양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48년생 집착할수록 손해이니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60년생 상대의 모호한 반응으로 답답할 수다. 72년생 점차로 발전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84년생 시간을 아끼며 집중적으로 몰입해야 할 때이다. 96년생 발전적이고 희망찬 영역의 활로를 개척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88

丑

37년생 원래부터 타고난 몹이 다르니 상대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49년생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61년생 고민하지 말고 상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73년생 끝까지 들어 볼 필요가 있다. 85년생 말하고 싶어도 내색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97년생 상호 교류를 위한 통로나 수단이 절실히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43, 44

寅

38년생 단연시 해왔던 바에 변수가 생긴다. 50년생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점차 수월해지리라. 62년생 고귀함을 이루는 마당이 펼쳐질 수 있다. 74년생 생산적인 관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6년생 알뜰함 속에서 화목함이 쓰트는 법이다. 98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야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느니라. 행운의 숫자 : 04, 15

卯

39년생 대체로 길조이다. 51년생 모두 헤아릴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63년생 일상을 내려놓고 과민대수할 일이 있겠다. 75년생 그대로 놔두면 매우 후회할 것이다. 87년생 거의 완벽한 형태이다. 99년생 빈 곳부터 먼저 채워주는 것이 낫겠다. 행운의 숫자 : 96, 50

辰

40년생 충고를 받아들이고 경험을 살려서 대처한다면 무난하겠다. 52년생 속도 보다 완성도가 요구되는 판도이다. 64년생 옛 인연을 소중히 여김이 바람직하다. 76년생 주변의 문제와 관련 되어질 수다. 88년생 상응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된다. 00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불미스런 형태로 비화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7, 90

巳

41년생 내 보내는 것보다 안으로 모아 들이는 것이 낫다. 53년생 시간은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의 하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65년생 가볍게 넘겨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77년생 한계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말썽의 소지가 크다. 89년생 고정 관념을 버린다면 새로운 면모를 얻을 수 있다. 01년생 근거가 없다면 무시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28, 84

午

30년생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하는 스트레스가 상당 하겠다. 42년생 계획대로 진행해도 무탈 할 것이다. 54년생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입장이 일관 되어야 한다. 66년생 통렬적인 절치가 따르는 것이 이로우리라. 78년생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90년생 상대에게 먼저 배려한다면 중국적으로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66, 25

未

31년생 활황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무의미하다. 43년생 가까운 이에게 꼭 챙겨줘야 할 일이 있다. 55년생 미련을 버리는 것이 낫다. 67년생 관계와 입장을 고려하자. 79년생 번거롭더라도 원칙과 체계에 따르는 것이 연속성을 담보한다. 91년생 주관대로 임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9, 31

申

32년생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유지해 나감에 좋다. 44년생 여러 사람들로 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는 영광이 따른다. 56년생 마음먹은 바가 그대로 형상화 될 수 있다. 68년생 기대에 부응해야 하느니라. 80년생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는 정황이다. 92년생 절차대로만 진행한다면 손조롭다. 행운의 숫자 : 47, 02

酉

33년생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라. 45년생 뜻밖의 것을 얻을 수 있는 행운이 따르리라. 57년생 교체 해주어 진부함을 해소하고 새 국면을 열어 갈 수 있다. 69년생 너무나 크고 충격적인 일이라서 아무 경황이 없을 것이다. 81년생 순발력과 마음의 여유가 절실히 요구된다. 93년생 실익이 없다면 끼어들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76, 97

戌

34년생 결과에 얽매지 않고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유익하다. 46년생 상호적인 관계에 신경 써라. 58년생 감정이 앞서지 않았는지 살펴 볼 일이다. 70년생 한꺼번에 물리는 형태이다. 82년생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지는 않나 살펴보자. 94년생 이익 앞에서 절제할 대답을 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69, 10

亥

35년생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정확하다. 47년생 너무도 비속하여 혼란에 빠질만하다. 59년생 외형까지 신경 쓴다면 부가적 효과가 따른다. 71년생 알려져 있는 것이 실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83년생 경청하되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것이 편하다. 95년생 거친 풍랑 위의 일엽편주에 비유할 만하다. 행운의 숫자 : 34, 09